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인터넷 강의과목 개발 사례

박정운(영남대 경영학부)

I. 통합적 인터넷 강의 개발배경과 사례작성의 목적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교육에 e-러닝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 경북권역 대학 e-러닝 지원센터가 2007년도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인터넷 강의를 공모하게 되었는데 저지는 성경과 증권투자를 통합하는 과목을 개발할 목적으로 공모에 지원한 것이 선정되어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라는 과목을 개발하여 2007년 2학기부터 영남대학교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강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성경과 투자론 전공을 통합하여 인터넷 강의 과목으로 개발한 것은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가 처음으로 시도된 과목일 것이다. 성경과 교양을 통합적으로 개발한 과목으로는 저자가 2006년에 개발한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가 있다(박정운, 2006).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또 다른 과목을 개발하면 수강을 신청하겠느냐는 질문에 80% 이상이 “예”로 답하였다. 또 어떤 분야의 과목이 개발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증권투자가 리더십 다음으로 관심도가 높았다. 아마 이것은 2007년에 한국 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상승하고 펀드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대학생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각 대학마다 인터넷 강의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을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솔로몬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교과목을 성경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를 개발한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라는 통합적 인터넷 강의개발 사례를 소개하

*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jypark@yumail.ac.kr

1) 코스피 지수는 2007년 11월 7일 현재 종가기준으로 2,043.19 였다.

고 기독교수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터넷 강의과목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데 있다.

논문의 구성과 전개순서는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강의 콘텐츠의 내용을 주차별로 간단히 서술한다. 이어 III장에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 논문의 요약과 함께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을 찾아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다.

II. 강의 화면의 구성과 주차별 강의 내용

1. 강의 화면의 구성

본 인터넷 강의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의 왼쪽 부분 상단에는 강사가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왼쪽 부분의 하단에는 강의목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쪽에는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2 주차별 강의내용과 구조적 특징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는 15주차로 강의하도록 설계되었다. 8주차와 15주차에는 각각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강의를 하는 것은 13주간이다. 각 주차별 강의 시간은 약 1시간이며 1주차와 14주차는 한 강의로 구성되어있으나 나머지는 약 30분간 진행되는 두 개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1강에서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투자 원리를 강의하고 2강에서는 실제 투자의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1강에서 성경적 투자 원리를 먼저 배우고 2강에서 이 투자원리와 연결하여 실제의 투자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수강생들이 투자론의 내용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각 주차별로 주제와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1주차 주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의 목적과 개관

전통적 투자론과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통적 투자론은 투자수익의 극대화만을 투자목표로 삼고 성경적 세계관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윤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는 성경적 투자원리를 따라 투자결정을 하고 투자의 윤리성과 사

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인가? 기존의 투자론에서 증권투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저자의 투자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것만으로는 투자에 대한 것을 온전히 배울 수 없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실제 투자에 적용했을 때 마음에 평안도 얻을 수 있었고 투자성과도 높일 수 있었다. 예컨대, 저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묵상하면서 '창조적 투자론'이라는 논문을 '통합연구'에 게재하게 되었고 이 원리를 지금도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고 있다(박정운 1992). 또한 속히 부자가 되기 위해 빚을 내어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로마서 13장 8절을 묵상하다가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빚을 갚고 다시는 빚내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다. 결국 성경적으로 빛에 대한 연구를 하여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라는 논문을 '통합연구'에 게재하였다(박정운, 1996).

결국 박정운은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라는 통합적 인터넷 강의를 2006년에 개발하여 영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오다가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여(박정운, 2006) 2007년에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인터넷 강의과목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의 목적과 개관
- 투자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투자계획
- 성경의 투자원리 12가지
- 투자 위험이 낮은 투자 상품
- 안정적 소득을 위한 투자: 채권투자
- 성장을 위한 투자: 주식투자
- 사회책임투자의 발전 배경과 내용
- 스크리닝을 통한 SRI 전략
- 기업과의 직접적 대화를 통한 SRI 전략
-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을 통한 SRI 전략
- 환경투자의 이해와 적용
- 투자 상담과 펀드 투자
- 영원한 투자의 즐거움과 유산

2주차 주제: 투자의 성경적 관점과 투자계획

2주차부터는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1강의 학습목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소개되고 있는 천국의 비유를 중심으로 작성한 논문인 '창조적 투자론'을 중심으로 성경적 투자관을 학습한다. 또한 청

자기의 자원에 대한 바른 투자 자세는 wasting이나 hoarding이 아니라 investing 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천국의 비유를 통해 투자목표와 투자원리를 배울 수 있다. 투자목표는 이 세상의 물질적 부를 극대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세 종류의 투자대상에는 절대적 보화, 중간적 보화, 상대적 보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보화는 천국에 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을 말한다. 절대적 보화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가치는 실로 엄청나서 사람의 자로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다. 박정운(1990)은 절대적 보화를 진리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간적 보화는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존재다. 박정운은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에 비하면 작지만 재물의 가치에 비하면 더 높기 때문에 사람을 중간적 보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은 인적 자산이라고 부른다(박정운, 1992).

상대적 보화는 재물을 말하고 있다. 박정운은 재물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천국에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보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상대적 보화를 물적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적 자산은 다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물자산은 창세기 24장 35절에서 찾아보면 양 떼와 소 떼, 은과 금,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들 수 있다. 금융자산의 예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누기복음 1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증서는 일종의 채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박정운은 진리 자산, 인적 자산, 그리고 물적 자산을 각각 진리 자본, 인적 자본, 물적 자본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물적 자본은 다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 밭에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투자의 원리와 집중투자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투자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일까? 청지기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먼저 청지기는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자원을 허비하는 예를 누기복음 15장 13절과 16장 1절, 그리고 잠언 29장 3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누기복음 15:13).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누기복음 16:1).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고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잠언 29:3). 둘째로 청지기는 맡은 자원을 활용하는 대신에 사장시킬 수 있다. 자원을 사장시키는 예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누기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한 므나를 받아서 수건에 싸둔 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8절, 25절에 한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땅에 묻어둔 종도 사장시킨 예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에 대한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맡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열 므나

의 비유에서 열 므리를 남긴 종이나 다섯 므리를 남긴 종은 낭비자나 사장시킨 자가 아니라 투자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도 투자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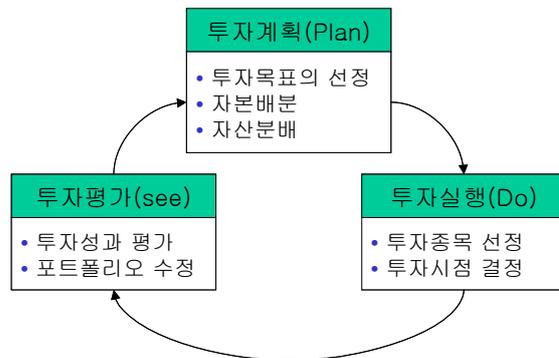
2장의 학습목표는 박정윤의 논문인 “이중적 경영모형: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경영”(박정윤, 2004)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나의 관리활동으로 인식하고 최적 투자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학습하는 데 있다. 또한 삶을 5가지 재무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중적 경영모형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사람도 계획, 실행, 평가의 세 과정에 따라 활동한다.

최적 투자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일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을 저축 또는 투자라 할 수 있다. 최적 투자결정은 투자기회의 집합과 투자자의 효용곡선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투자 관리의 내용은 Alvin Brown의 모형을 따라 투자 계획, 투자 실행, 그리고 투자 평가의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투자계획에서는 투자기간과 같은 투자의 제약조건들과 함께 목표수익률과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투자목표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자본배분과 자산 배분을 한다. 자본배분은 투자자금을 무위험 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결정하는 것이고 자산배분은 위험자산 투자금액을 다시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투자실행은 투자종목을 선정하고 투자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투자실행은 구체적으로 투자종목의 매입, 매각 보유, 교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평가는 투자성과를 평가하고 포트폴리오의 수정을 말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투자 관리의 세 단계



우리의 삶을 5가지의 재무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비상준비금을 마련하는 단계다. 둘째 단계는 재산을 축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주택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준비하고 아울러 은

되 준비를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가진 재산을 유동화 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자신의 투자나 사업체를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자산으로 유동적 자산으로 만드는 단계를 의미한다. 네 번째는 보존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더 늘리는 데 신경을 쓰기 보다는 보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은퇴 시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 단계에 속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배하는 단계이다. 죽을 때 유산의 형태로 분비할 수도 있지만 죽기 전에 선물을 통해 분배할 수도 있다.

3주차 주제: 성경의 투자원리

1강은 달란트 비유로부터 배울 수 있는 투자원리를 다루고 있다. 1강의 학습목표는 마태복음 25장 14절 - 30절에 소개되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의로운 청지기로서의 투자에 대한 자세와 원리를 배우는 데 있다.

먼저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며 1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년에 300일 일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 이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며 우리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이다.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이익이 있을 경우 그 이익을 주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시편 기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로다” (시 24:1).

둘째, 주인은 우리 각 자의 재능에 따라 돈을 맡기신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25:15). 세 번째, 주인은 투자성과에 대해 평가하신다. 어떤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다른 종에게는 책망을 하고 있다. 넷째, 투자성과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상을 하고 벌을 준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는 한 달란트를 더 받았지만 투자금액을 사장시킨 종은 맡은 한 달란트마저 도로 빼앗겼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직접투자전략과 간접투자전략이다. 장사를 하는 것은 직접 투자로 볼 수 있고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간접 투자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대로 돈은 그 가치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재물의 거래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리적 투자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식하고 맡기신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부지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투자하고 관리하여 많은 것을 남겨 주님께 결산보고를 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강에서는 성경의 투자원리를 12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12가지 원리는 1) 투자목적에 설정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라; 2) 모든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익과 함께 수반되는 위험도 따져

보라, 3) 분산투자를 하라, 4) 투기와 조급한 투자결정을 피하라, 5) 빌린 돈으로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6) 개인적 보증을 피하라, 7) 사회적책임투자 또는 윤리적 투자를 하라, 8) 근심을 초래하는 투자를 피하라, 9) 두려움과 탐심이 투자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10) 가격이 오른 것은 적어도 당분간 하락한다, 11) 너무 좋게 보이는 투자광고에 현혹되지 말라, 12)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십일조를 하라.

4주차: 시장위험이 없는 투자

1강의 학습목표는 창세기 4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집트 바로왕의 꿈과 요셉의 해몽을 통하여 경기순환현상을 배우고 호경기때 불황기에 대처하는 지식과 지혜를 학습하는 데 있다. 이집트 바로왕의 꿈과 번민이 창세기 41장 1절 - 8절에 소개되어 있고 요셉의 해몽과 경제적 처방이 창세기 41장 25절 - 36절에 기술되어 있다.

요셉이 제시한 경제적 대책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풍년에 소출의 1/5, 즉 20% 를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다. 이때는 농경시대였지만 지금은 산업시대를 지나서 지식정보시대이다. 지식정보시대에는 기술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경기순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언제 불황이 닥쳐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늘 불황에 대비해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미리 저축할 필요가 있다. 요셉의 경제적 처방은 우리가 소득의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저축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다. 그는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에서 게으른 지는 개미에게 가서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고함으로써 저축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는 잠언 21장 20절에서 저축과 소비에 대한 교훈을 짧은 잠언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요컨대, 창세기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저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경제행위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우리는 불황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자.

저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의 투자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금융 상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2강의 학습목표이다. 투자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한다. 단기 금융상품의 장점으로는 우선 이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경우 이 돈을 긴급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큰 구매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3개월 내지 12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기금융상품이다. 또 다른 장점은 좋은 투자기회 있을 때 이 상품에 있는 것을 찾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하면 이웃의 필요시에 도울 수도 있다.

물론 단기금융상품의 단점도 있다. 첫째, 단기금융상품의 투자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한다. 둘째, 투자수익이 해마다 다를 수 있다. 셋째,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경우에는 자금이 일정 기간 묶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단기금융상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금융상품의 예상수익과 위험은 어느 정도 되는가? 단기금융상품에는 어음관리 계좌(CMA), 양도성 예금 증서(CD), 신종기업어음(CP), MMF(call, 통안증권, CP 등에 운용하는 펀드), MMDA 등이 있다. 단기금융상품은 투자위험이 아주 낮은 대신에 기대수익률도 낮다.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는 인플레이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플레이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는 길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 헛지가 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연금과 같이 세금연기가 가능한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리고 세금관리를 위해 소득을 일정액 할당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5주차 주제: 안정적 소득을 위한 투자(채권투자)

1강의 학습목표는 열왕기 하 4장 1절 -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사의 한 제자의 빚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제자의 부인이 이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배우고 이와 관련해 빚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강생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데 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과부의 위기는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하는 것이었다.

이 여인은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상담을 구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하였으나 여호와의 대한 믿음이 있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행함으로 기름을 풍성하게 얻게 되었고 얻은 엘리사의 지시대로 얻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빚에 대한 성경적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열왕기하 4장 1절과 같이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의 종이 될 수 있다. 잠언에서도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7절에서 이 과부가 한 것처럼 우리도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또한 신명기 28장 12절과 44절을 보면 빚은 저주의 신호이지만 채권은 축복의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를 물어야 한다. 신명기 23장 2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요컨대, 빚이 있는 사람은 원금 상환압박과 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먼저 빚을 갚고 난 다음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다.

2장의 학습목표는 채권의 종류와 투자 특성을 이해하고 채권에 대한 투자전략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은 기업, 정부, 공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지급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채권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먼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 순수 할인채, 복리채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지급이자를 변동여부에 따라서는 확정금리 채권과 변동금리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채와 국제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국제채로는 양키 본드, 사무라이 본드, 아리랑 본드가 있다.

채권의 투자에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다. 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위탁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채권의 최저투자금액은 제한이 없다. 우리가 채권에 투자할 때는 채권의 종류, 투자기간, 그리고 투자수익률을 참고하여 투자결정을 하면 된다.

채권투자전략에도 소극적 투자전략과 적극적 투자전략이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극적 투자전략을 선택할 것이고 채권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 투자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6주차 주제: 성장을 위한 투자 (주식투자)

1장의 학습목표는 누가복음 19장 11절-27절에 소개되고 있는 '열 므나의 비유'를 통해 투자원리를 배우는 데 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비유의 바로 앞에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소개되고 있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누가복음 19:9)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쳐줄 필요를 느낀 나머지 이 비유로 가르치게 되었다.

이 비유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원리를 배울 수 있다. 첫째, 투자자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주인의 뜻을 따라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둘째, 주인은 투자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상한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보고를 받았을 때 첫째 종이 나아와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대"(누가복음 19:16)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귀인은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누가복음 19:17)고 평가를 하면서 그 보상으로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다섯 므나를 남긴 종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동일한 칭찬을 하였으나 보상은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한 므나를 수

건에 써둔 종은 책망을 하면서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누가복음 19:24)고 하였다. 셋째, 투자성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열 므나를 남긴 종, 다섯 므나를 남긴 종도 있고 또 전혀 남기지 않은 게으른 종도 있었다. 넷째, 지극히 작은 투자금액이라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한 므나는 100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노동자의 일당이 5만원라면 한 므나는 5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했을 때 열 고을 또는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을 볼 때 그 보상은 매우 컸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금액이라도 잘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다면 간접투자라도 해야 한다. 받은 므나를 수건에 싸두고 장사를 하지 않은 종에게 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누가복음 19:23). 장사하는 것을 직접투자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은행에 간접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의 재물은 주님께서 맡긴 것을 인식하고 비록 그 금액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 므나를 남긴 자처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는 칭찬과 보상을 받는 투자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강의 학습목표는 주식이 채권과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고 주식의 투자특성을 파악하고 성경적 투자전략을 학습하는 데 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은 기업 소유권의 증서이다. 주주는 사업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자이다. 따라서 주주는 사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다. 그러나 주주의 권리는 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서 뒤진다.

주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주 권리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또한 액면 표시 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가 있다. 주금의 납입여부에 따라 유상주와 무상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투자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식은 투자수익률도 높지만 위험도 매우 높다. 본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20년간의 실제 투자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할 결과 주식은 연평균 수익률이 18.6%였지만 위험은 35.7%였다(박정윤, 2003). 이것은 회사채나 국채에 비해 수익률도 높았지만 위험도 훨씬 더 컸다.

왜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는가?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량주에 투자하면 다른 투자대상보다 성과가 더 높다. 둘째, 주식투자는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게 되고 기업은 이 자본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준다. 셋째, 주주는 기업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주주는 기업 경영자에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표〉 투자자산의 연평균 수익률과 위험(%)

자산		산술평균수익률 (A)	표준편차 (B)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A/B)
주 식*	종합	18.6	35.7	0.52
	대형	19.8	37.0	0.53
	중형	21.5	35.2	0.61
	소형	25.3	35.0	0.72
회사채		15.5	4.5	3.41
국 채		14.5	4.7	3.11
부동산		8.0	10.9	0.73
정기예금		10.5	2.7	3.88

*주식자본금 규모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995년 1월까지의 대형주: 150억이상, 중형주: 50억이상 150억미만, 소형주: 50억 미만

1995년 2월부터는 대형주: 750억 이상, 중형주: 350억 이상 750억 미만, 소형주: 350억 미만

우리는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투자전략적인 차원에서 구분하면 투기적 주식(speculative stocks), 성장주식(growth stocks), 우량주(blue chip stocks), 그리고 공익사업주식(utility stocks)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의 종류에는 투기적 투자자, 일반적 투자자, 그리고 진정한 투자자가 있다. 이것은 투자기간에 따른 구분이다.

투자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있다.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대가는 가치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치투자란 주식의 시장가격이 내재적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주식을 골라 투자하는 투자 철학을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기본적 분석은 거시적 분석, 산업분석, 그리고 기업분석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7주차: 사회책임투자의 발전 배경과 내용

1강에서는 누기복음 16장 1절-13절에 소개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재무관리의 원리와 투자원리, 특히 윤리적 투자와 사회책임투자의 기초를 학습한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의 문제는 자신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여 청지기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청지기의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은 실직 이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는 땅 파는 일, 동냥하는 일,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일의 세 대안을 모색하고 평가한 결과 최적 대안으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선택한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관리와 투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물의 속성(불확실성, 부정직성, 소유가능성, 제한적 가치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재물의 거래에 정직해야 한다. 재물의 거래에 부정적하면 진정한 부인 천국의 부에도 정직할 수 없다. 남의 돈(타인자본)을 빌렸으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에게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경영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인이 맡기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솔로몬도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그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잠언 3:33)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잠언 14:11)고 주장한다.

요컨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윤리적 투자와 사회책임투자의 기초에 대해 학습하였다.

2장에서 사회책임투자의 발전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사회책임투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윤리적 투자와 자연적 투자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이다.

사회책임투자란 무엇인가? 그것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개인적 가치들과 사회적 관심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순전히 미국에서 고안한 것이지만 유럽과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와 무엇이 다른가? 전통적 투자는 투자수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책임을 수행하여 이웃도 잘 살 수 있게 한다.

사회책임투자는 서구 종교 단체의 활동에서 출발하였다. 웨이커크교도가 복미에 정착하여 무기와 노예 관련한 회사에 투자를 거부하였고 종교단체들은 인류에 해가 되는 상품(술, 무기, 담배 등)을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사회책임투자의 정신은 존 웨슬리(1705-1791)의 ‘돈의 사용’에 대한 설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웃을 해치게 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설교하였다. 그의 설교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웃을 재산상으로 다치게 하지 말라. 둘째, 이웃을 육체적으로 다치게 하지 말라. 셋째, 이웃을 정신적으로 다치게 하지 말라.

현대적 의미의 사회책임투자의 시작은 19세기에 되었다. 인권, 여성, 반전, 환경운동에까지 많은 이슈들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기업경영에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었다.

사회책임투자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1970년대 있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반 인종차별운동이었다.

투자자는 어떻게 SRI를 실행할 수 있는가? 3가지의 추진전략이 있다. 스크리닝 전략, 주주행동주의(주주와의 대화), 그리고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사회책임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9주차 주제: 스크리닝 전략

1강에서는 마태복음 13장 3절 - 9절에 소개되고 있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스크리닝 전략의 기초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물론 복음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씨뿌리는 자는 농부이지만 투자자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장소는 투자하는 곳, 즉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였다. 그런데 열매를 맺은 곳은 옥토뿐이었고 수익도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나 되었다. 이것을 주식투자에의 적용한다면 투명경영과 같은 성경적 경영원리에 따라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배척하고 (negative screening) 옥토와 같은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함으로써 (positive screening)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스크리닝 기술을 익혀야 한다.

구약에 등장하는 거부인 이삭은 실제로 농사를 통해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12-13).

우리는 주식투자를 할 때 100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보자.

2강의 학습목표는 사회책임투자 전략 가운데 하나인 스크리닝의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 적용방법을 학습하는 데 있다.

스크리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투자대상으로 선택하는 선별전략을 말한다. 스크리닝에는 부정적 스크리닝과 긍정적 스크리닝이 있다.

부정적 스크리닝은 배척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여기세 해당하는 것은 무기, 알코올, 담배, 그리고 도박이다. 즉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무리 수익률이 높더라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긍정적 스크리닝은 그 기준으로 자선을 행하는 기업,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있는 기업, 환경경영을 하는 기업,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종업원복지향상과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행하는 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킨다.

10주차 주제: 주주행동주의 전략

1강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마태복음 6장 9절-13절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기도의 모범'을 통해 주주로서의 삶의 원리를 학습하고자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활동하고 있는 학교나 기업, 그리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야 한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히는 기능 외에도 성장, 치료,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소개되고 있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학교와 직장, 기업,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투자결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에 잘 나타나 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1강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주주행동주의, 즉 주식투자자인 주주로서 기업경영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학습하였다.

2강의 학습목표는 사회책임투자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서 주주 행동주의의 내용을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무엇인가?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유권을 바탕으로 경영에 개입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주주행동주의라 한다.

주주행동주의의 대두배경은 무엇인가? 기업이 단순히 이익극대화나 가치극대화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 주주행동주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1주차 주제: 지역사회개발 금융기관

1강의 학습목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소개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지역 사회개발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린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사람도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차례로 같은 길로 내려가다가 동일하게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비유의 줄거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들려준 뒤 그에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라고 답하자 예수 그리

스도는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 율법사의 최고의 직무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다. 율법사는 아마 강도 만난 자가 죽은 것 같아 부정탈까봐서 돕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친 후라 생각된다. 따라서 그가 부정을 탈까봐서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은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레위인의 업무는 성전 봉사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그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볼 수 없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가? 그는 여행 중에 있었고 강도 만난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였다. 사마리아인이 희생을 한 것을 보면 기름과 포도주, 싸맨 천, 수송수단 제공, 숙박비, 부비, 함께한 시간,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까지 있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람의 원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2강의 학습목표는 1강에서 배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행동을 지역사회개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하는 데 있다.

주주행동주의는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주행동주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1988년부터 1998년 까지 10.3%의 하락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극빈자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극빈층이란 부동산적으로 볼 때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 하우스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투자도 지역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지역사회개발 은행이나 신용조합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투자를 통하여 지역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CDFI)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가 지역사회개발 대출펀드(Community Development Loan Fund; CDLF)이다. 이것은 여러 자금원에서 돈을 빌려 차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차입자가 시도하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건물을 지원하기도 하고 기술적 문제도 지원한다. 차입자는 신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 방법은 가장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도우는 방법이다.

이에 속하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맥콜리 인스티튜트가 미시시피 북쪽의 한 농촌지역에서 수행한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이 농촌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섰다. 농토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게 되어 1994년 월스 라는 마을에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 마을 소작농 11기구가 살던 집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성심회 신부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리자 맥콜리 인스티튜트가 유니언 플랜터스 बैं크와 United

Way 등 제휴하고 있는 기관들과 신속히 대응하였다. 이들은 38기구의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임대료는 가계수입의 30%로 정하였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상당 기간 참을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사회책임투자자는 2년 이상 장기 대출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종류는 지역사회개발 은행이다. 소수인종 소유은행도 인근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하고 있다. 블랙피트 내셔널 은행은 몬테나 주에 거주하는 블랙피트 부족이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디언 보호지역에 있는 연필제조업에서 병원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자들은 어떻게 지역사회개발 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개발은행에 예금개좌개설하거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면 된다. 이 예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고 있어 안전하다.

지역사회개발은행의 장점은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이 은행의 예금금리는 경쟁력이 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회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개발 금융기관의 세 번째 종류는 지역사회개발 신용조합(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 CDCU)이다. 지역사회개발 신용조합의 뿌리는 교회 또는 저소득 지역의 친목단체인 경우가 많다. 규모가 영세한 특징이 있다. 소재지의 인근지역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풀뿌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이며 예금 보장의 대상이다.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고 자원자로 구성된 이사회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신용조합은 회원의 예금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예금도 유치 가능하다.

요컨대, 사회책임투자자의 실행전략으로 지역사회개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개발 대출펀드, 지역사회개발은행, 그리고 지역사회개발 신용조합에 대해 학습하였다.

12주차 주제: 환경 투자의 이해와 적용

1강에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창조에 대한 신앙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환경경영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 세계가 존재하는가? 이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창조하다’, ‘짓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bara’의 신학적 내용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둘째, ‘bara’라는 동사는 목적격이나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재료가 없는 창조’이다. 셋째, 구약에서 ‘bara’의 대상은 하늘과 땅,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다.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인간도 자연이다. 둘째, 인간은 자연의 관리자이다.

창세기 1:26-28에 나오는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radah’의 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라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도주 압착기를 누르다는 뜻(욥기 4:13), 적을 쳐부수다의 뜻(느헤미야 9:28), 강제노동을 통하여 노예를 억압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이다. 라다의 바른 뜻은 ‘장려하다’, ‘돌보다’, ‘기꾸다’, ‘보호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섬김의 또 다른 형식이다(로퐁크 교수).

‘정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kabas’의 바른 의미는 경작과 보존이다.

창조시의 환경 상태는 어떠했을까? 한 마다로 완전한 상태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무려 여섯 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구환경을 돌볼 책임이 있다.

2강의 학습목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전략으로서 환경투자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환경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학습하는 데 있다.

환경문제의 배경에는 인구증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를 들 수 있다. 환경문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 메탄, CFC(플레온 가스), 산화질소 등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물질의 대기농도의 상승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1990년대보다 섭씨 1도가 상승하였고 21세기 말에는 3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는 태양광중 유해한 자외선이 지상에 도달하는 양을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하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파괴현상을 말한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CFC이다.

셋째, 산성비이다. 이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대량 연소로 산성기체의 배출이 발생하고 침엽수림이 고사하고 있다. 호수의 물고기가 전멸되기도 하고 토양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넷째, 열대림 감소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를 재촉하고 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된다. 현재 지구는 하루에 1.6 ha 씩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600만 ha에 해당한다.

다섯째,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하루에 약 100종씩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연간 400만종이 멸

종되는 것이다. 20년 내에 생물의 10%가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이다. 간접적 해양오염으로 유류 유출사고를 들 수 있다. 1989년 엑손사의 발데즈 호 사고와 1992년 이지언시호 사고를 대표적인 것을 들 수 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CERES 원칙은 다음의 10가지를 담고 있다. 자연 생태계 보호, 자연자원 지속가능한 사용, 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처리, 에너지 보존, 위험 감소,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환경 복구, 일반 대중에게 정보 공개, 경영진의 참여, 그리고 감사 및 보고이다.

환경투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환경보전 노력도 하면서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환경투자의 실천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 환경 펀드(Eco-Fund)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환경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회사채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도 이미 에코 펀드가 등장하였으며 사회책임투자자의 수가 증가하고 해가 지날수록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컨대, 이 주차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지구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세레스 원칙과 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해 학습하였고 아울러 환경경영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투자의 실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3주차 주제: 투자 상담과 펀드 투자

1강의 학습목표는 누가복음 11장 5절 - 13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투자 상담의 원리를 이해하고 전도서 11장 1절2절 말씀에 근거하여 펀드 투자에 원리를 학습하는 데 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자 제자중 하나가 예수께로 나아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치는 외에 친구 관계와 부자관계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있다. 누가복음 11:5-8에서는 강청하면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9-13에서는 의로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반복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16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parakletos)이다.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결

에 부름을 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를 뜻한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특히 투자문제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편 기자도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시 119:24) 하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모사는 상담자를 뜻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 상담자와 상담을 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잠언 15:22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과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상담이 부족하면 우리의 투자계획이 실패하지만 많은 상담자와 상담을 하면 투자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크리스천의 상담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성경적 투자원리에 기초해 상담해주는 투자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상담을 받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빼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허락하실 때 부터 배우자와 상담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문 상담자는 때때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상담하기도 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투자를 할 때 투자위험이 감소한다고 말한다. 성경에도 분산투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다. 전도서 11:1-2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찌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는 여러 군데 분산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13주차에서는 투자 상담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잠언에서 찾아 학습하였다. 또한 분산투자에 대한 원리를 전도서 11장 2절에서 찾아 정리하였다.

2강의 학습목표는 펀드에 대한 이해를 한 후에 펀드 투자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리고 펀드의 종류와 선택 원리를 배우는 데 있다.

펀드란 무엇인가? 펀드란 다수, 소수에 의해 자금을 모아 어떠한 목적을 위해 관리 운영되는 돈의 집합을 말한다.

왜 최근에 펀드 투자가 유행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직접 증권투자를 하여 많은 실패를 하였다. 둘째, 저금리 시대가 계속 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곧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이다. 넷째, 이전에 과중한 부동산 투자가 있었고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펀드 투자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있다.

펀드 투자도 장단점이 있다. 펀드 투자의 장점에는 첫째, 소액 분산 투자이다. 소액으로 여러 증권에 분산투자 가능한 것이다. 둘째,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즉,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주식, 채권, 선물, 옵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셋째, 전문가에 의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펀드에 운용되는 자산은 전문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첫째, 전문가가 펀드 자산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원금손실발생가능은 있다. 왜냐하면 펀드는 실적 배당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금은 그 수수료가 2% 전후다. 이 펀드 수수료는 펀드의 형태가 채권형이나 아니면 주식형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펀드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와 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과 주식을 혼합해서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가 있다. 이 세 펀드의 투자특성은 기대수익률과 위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가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고 투자 위험도 제일 높다. 채권형 펀드는 기대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투자위험도 낮다. 혼합형 펀드는 그 중간이다. 세 펀드 가운데 어느 펀드를 선택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펀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펀드 중에서 어떤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선택의 원칙을 몇 가지 소개해본다. 첫째, 가능하면 오래된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신규 펀드는 그 실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운용회사를 보고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펀드 매니저를 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운용회사의 신용과 투자 철학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단순한 펀드를 골라야 한다. 어떤 펀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다. 원금보장형 펀드나 주가지수연동증권과 같이 단순한 펀드가 좋다. 넷째, 투자전략이 명확한 펀드가 좋다. 가치주 펀드, 성장주 펀드, 국공채 펀드와 같이 투자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를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산규모가 늘어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산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 펀드의 실적에 대해 만족한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적립식은 위험분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안정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펀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투자 대신에 간접투자인 펀드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펀드 투자의 장단점, 펀드의 종류, 펀드를 선택하는 원칙에 대해 정리하였다.

14주차 주제: 영원한 투자

14주차의 학습목표는 마태복음 25장 31절46절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원한 투자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유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있다.

마태복음 25:31-46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다.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될 수록 우리가 번 돈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영원한 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눈 것은 영원한 투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제임스 힌들은 영원한 투자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믿지 않는 자의 투자와 나눔이다. 이 상태를 두 개의 원 즉 투자의 원과 나눔의 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 투자의 원은 크고 나눔의 원은

매우 작으며 두 개의 원이 떨어져 있다. 2단계는 예수를 영접하고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단계를 말한다. 두 개의 원이 1단계와 같으나 두 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은 영원한 투자를 의미한다. 3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는 마태복음 6:19-21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나눔의 원이 더 커지고 영원한 투자도 더 많아지는 단계이다. 4단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 속한 자는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한 후에는 '얼마를 나눠야 하는가?' 보다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적게 가질 것인가?'의 태도를 가진 자이다. 여기서 투자의 원과 나눔의 원의 크기가 같아지고 영원한 투자가 최대가 된다.

나눔에 대한 지침은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십일조가 기준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자발적이다. 그리고 나눔은 사랑에 대한 시험이 된다.

신약의 십일조에 대한 기준은 고린도 전서 16:1-2에 잘 나타나 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헌금은 정기적으로 드려야 한다. 물론 얻은 소득에 비례하여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이 있다”(사도행전 20:35)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여 영원한 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III. 설문조사의 실시와 결과분석

수강생들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강의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터넷 설문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강생 377명중 344명이 설문에 응답하여서 응답률이 90%가 넘었다. 설문 항목으로 개발된 문항은 모두 20항 이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5다시 선택으로 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서 문항의 내용과 문항별 설문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응답한 수강생은 4학년이 50%로 제일 높았고 3학년이 33%, 2학년이 12%, 그리고 1학년이 3%로 가장 낮았다. 학년이 높을수록 본 과목의 수강이 많은 것은 고학년이 될 수록 인터넷 수강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이 211명으로 63%로 여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이 과목을 어떻게 수강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강의 요람을 보고'가 51%로 가장 높았다. '친구의 권유'가 35%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박 교수의 홍보'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는 학생은 7%(25명)이었다. '멀티 미디어 지원센터의 홍보를 보고' 수강한 학생이 5%로 가장 낮았다.

이 과목을 포함하여 인터넷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과목 수는 2과목이 50%로 가장 높았다. 3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32%로 그 다음 높았고 1과목만 듣는 학생은 16%였다.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가 2007년 2학기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과목만을 신청한 것이 16%나 되었다는 것은 이 과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하는 인터넷 과목을 off-line 강의보다 더 선호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60%나 되었다. '아니요'라고 답한 학생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문항에서는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인간)를 이전 수강하였거나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예'라고 답한 학생이 73%나 되었다.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의 수강생이 이 과목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개발한 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48%인 163명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로 답했고 38%는 '조금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9%였다. 2%만이 '조금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이 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이 과목을 다른 학생에게 수강을 추천하겠습니까?"는 질문에 59%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답했다. '소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가 24%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강생의 종교는 개신교가 44%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10%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천주교는 9%로 불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슬람교인 한 명도 없었고 기타가 34%였다.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는 질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혀 읽지 않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27%로 두 번째로 많았다. '거의 매일' 성경을 읽는 학생도 18%로 꽤 높았다. '한 달에 한번 정도'와 '일 년에 한번 정도'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10%와 12%였다.

이 과목에 다루지 않은 주제를 묻는 질문에 '옵션'이라고 답한 학생이 42%였다. 실제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에서는 옵션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책임투자'로 답한 학생이 45%로 된 것은 의외였다. 왜냐하면 이 과목에서 '사회책임투자'를 4주에 걸쳐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책임투자'를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보통예금'이 63%로 가장 높았다. '펀드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학생도 19%로 비교적 높았다. '주식'과 'MMF나 CMA'에 투자하고 있는 수강생은 각각 8%였다.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주식에 직접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고작 23%에 지나지 않았다.

주식투자를 할 경우 목표수익률은 '10%'와 '15%'를 답한 학생이 31%와 29%로 비슷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식투자로부터 벌려고 하는 목표수익률은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와 '25%' 이상으로 답한 학생은 각각 17%와 12%였다. '8%'로 답한 학생도 9%나 되었다.

또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간접투자인 펀드투자를 직접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접투자를 더 선호하는 학생이 63%로, 직접투자를 더 선호하는 학생은 36%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20만 원 이상 - 30만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다. '30만 원 이상 - 40만원 미만'이 2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러나 '20만원 미만'으로 답한 학생도 16%로 제법 많았다. '40만 원 이상 - 50만원 미만'은 11%였고 '50만 원 이상' 되는 학생도 6%나 되었다.

'박정윤 교수는 off-line으로 '투자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박 교수는 학생들에게 용돈을 10% 줄여서 조별로 투자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게 생각한다'로 답한 학생이 58%라고 답했다. '조금 좋게 생각한다'로 답한 학생도 28%나 되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또 다른 인터넷 강의를 개설한다면 수강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예'로 답한 학생이 73%나 되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은 8%에 지나지 않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목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터넷 과목을 개설한다면 다음 중에서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과 리더십'이 33%로 가장 높았다. '솔로몬의 성공학', '솔로몬의 부자학', 그리고 '성경으로 배우는 경영학'이 각각 18%로 동일한 관심을 보였다. 앞의 두 과목이 잠언으로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한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한 책에 기초하여 인터넷 과목을 개발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과목에 대한 교재를 집필할 경우 책 제목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주관식으로 물었다.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가 좋겠다고 답한 학생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기발한 제목들이 많았다.

IV. 요약과 설문결과의 시사점

본 논문의 목적은 2007년 2학기부터 영남대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시작한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과목의 강의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있다.

먼저 저자가 이 과목을 개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한 후에 15주간의 주차별 강의 콘텐츠를 간단히 제시하고 설명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를 인터넷 과목으로 개발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일반 대학에서 성경에 기초하여 전공과목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대학생들에게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예수 그리스

도의 비유를 통하여 투자원리를 도출하고 가르침으로써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가득 차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증권투자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학생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경과 증권투자의 연결성이 너무 자연스럽다. 투자와 성경이 상당히 방대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또 다른 학생은 이 과목을 통하여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랐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며 하나하나 알아 간다는 것이 신기하군요 수업을 하나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 시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off-line 강의보다 인터넷 강의를 더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 현상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호·오세경(2000), 『증권투자론』 경문사.
- 에이미 도미니(2004), 사회책임투자, 필맥, 구홍표 이주명 옮김.
- 박정윤(1992), 창조적 투자론,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131-149.
- 박정윤(1996),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 통합연구, 통합연구학회, 167-180.
- 박정윤(1998) 『빛진 자로 살 것인가 빌려주는 자로 살 것인가』, 삼영사.
- 박정윤(2002), 창조에 나타난 경영사상, 기독교경영연구 창간호, 65-74.
- 박정윤(2003), 주식을 과연 투자대상으로 고려해도 좋은가?, 재무관리논총, 한국재무관리학회, 145-161.
- 박정윤(2004), 이중적 경영모형: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경영, 로고스경영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1-13.
- 박정윤(2006), 『행복한 부자』, 영남대학교 출판부.
- 박정윤(2006),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 인터넷 강의과목 개발사례, 로고스경영연구, 4권 2호, 49-74.
- 하워드 핸드릭스 (2002), 정명신 옮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생명의 말씀사.
- Blue, Ron (1989), *The Debt Squeeze*, Publishing, Colorado).
- Blue, Ron (1991), *Master Your Money*,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 Burkett, Larry (1989), *Debt-Free Living*, Chicago, Moody Press.
- Burkett, Larry (1992), *Investing for the Future*, Victor Books, Illinois.
- Dayton, Howard (1996), *Your Money Counts*, Tyndale House Publishers, Wheaton, Illinois.
- McMaster, R. E. (1982), JR, *Wealth For all*, A. N., Inc., Whitefish, Montana.
- Moore, Gary D. (1990), *The Thoughtful Christian's Guide To Investing*, Zondervan Publishing House, Grand Rapids, Michigan.

부록: 설문 문항의 내용과 설문 결과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본 증권투자"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 여름 방학때 개발이 완료되었고

2007년 2학기에 영남대학교에 처음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내용을 파악하고 강의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인터넷강의 개발사례"라는 제목으로 사례를 작성하여 가을에 있을 학회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문 제	귀하는 현재 몇 학년에 재학중입니까?			
보 기	1. 1학년		3 %	11명
	2. 2학년		12 %	43명
	3. 3학년		33 %	113명
	4. 4학년		50 %	167명
2 문 제	귀하의 성은 무엇입니까?			
보 기	1. 남학생		63 %	211명
	2. 여학생		36 %	123명
3 문 제	귀하는 이 과목을 어떻게 수강하게 되었습니까?			
보 기	1. 박교수의 홍보로		7 %	25명
	2. 친구의 권유로		35 %	119명
	3. 강의요람을 보고		51 %	173명
	4. 멀티 미디어 지원센터의 홍보를 보고		5 %	17명
4 문 제	귀하는 이번 학기에 인터넷 과목을 몇 과목 수강하고 있습니까?(이 과목 포함)			
보 기	1. 1과목		16 %	55명
	2. 2과목		50 %	170명
	3. 3과목		32 %	109명
5 문 제	귀하는 인터넷 과목을 off-line 강의보다 더 선호합니까?			
보 기	1. 예		60 %	201명
	2. 아니오		24 %	83명
	3. 잘 모르겠다.		14 %	50명
6 문 제	귀하는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인강)를 이전 수강하였거나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습니까?			
보 기	1. 예		73 %	245명
	2. 아니오		26 %	89명

7 문 제	귀하는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강의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보 기	1. 매우 만족하고 있다.		48 %	163명
	2. 조금 만족하고 있다.		39 %	132명
	3. 그러 그렇다.		9 %	31명
	4. 조금 불만족하고 있다.		2 %	7명
	5. 아주 불만족하고 있다.		0 %	1명
8 문 제	귀하는 이 과목을 다른 학생에게 수강을 추천하겠습니까?			
보 기	1.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59 %	198명
	2. 소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24 %	83명
	3. 잘 모르겠다.		14 %	50명
	4.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다.		0 %	2명
	5.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다.		0 %	1명
9 문 제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보 기	1. 불교		10 %	35명
	2. 천주교		9 %	33명
	3. 개신교		44 %	150명
	4. 이슬람교		0 %	0명
	5. 기타		34 %	116명
10 문 제	귀하는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답을 선택하세요)			
보 기	1. 거의 매일		18 %	63명
	2. 일주일에 한번 정도		30 %	102명
	3. 한 달에 한번 정도		10 %	34명
	4. 1년에 한번 정도		12 %	42명
	5. 전혀 읽지 않고 있다.		27 %	93명
11 문 제	다음에 나열한 것은 이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 가운데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보 기	1. 옵션 투자		42 %	143명
	2. 채권투자		3 %	13명
	3. 주식투자		3 %	11명
	4. 펀드투자		4 %	16명
	5. 사회책임투자		45 %	151명
12 문 제	귀하는 현재 주로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보 기	1. 보통예금		63 %	213명
	2. MMF 또는 CMA		8 %	29명
	3. 채권		0 %	0명
	4. 주식		8 %	27명
	5. 펀드나 수익증권		19 %	65명
13 문 제	귀하는 직접 주식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 기	1. 예		23 %	78명
	2. 아니오		76 %	256명

14 문 제	귀하가 주식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연간 목표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세요)			
보 기	1. 8%		9 %	32명
	2. 10%		31 %	106명
	3. 15%		29 %	97명
	4. 20%		17 %	57명
	5. 25% 이상		12 %	42명

15 문 제	귀하는 주식투자를 할 때 직접투자자(펀드 투자)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합니까?			
보 기	1. 직접투자		36 %	122명
	2. 간접투자(펀드투자)		63 %	212명

16 문 제	귀하의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보 기	1. 20만원 미만		16 %	54명
	2.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0 %	136명
	3.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24 %	81명
	4.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1 %	40명
	5. 50만원 이상		6 %	23명

17 문 제	박정윤 교수는 off-line으로 "투자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박교수는 학생들에게 용돈을 10% 줄여서 조별로 투자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 기	1. 매우 좋게 생각한다.		58 %	197명
	2. 조금 좋게 생각한다.		28 %	95명
	3. 그저 그렇다.		10 %	36명
	4. 조금 나쁘게 생각한다.		1 %	6명
	5.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		0 %	0명

18 문 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또 다른 인터넷 강의를 개설한다면 수강을 하겠습니까?			
보 기	1. 예		73 %	247명
	2. 아니오		8 %	29명
	3. 잘 모르겠다.		17 %	58명

19 문 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터넷 과목을 개설한다면 다음중에서 어떤 과목에 관심이 많습니까?			
보 기	1. 성경으로 배우는 경영학		18 %	63명
	2. 성경으로 배우는 기업재무관리		10 %	34명
	3. 솔로몬의 부자학(잠언으로 배우)		18 %	63명
	4. 솔로몬의 성공학(잠언으로 배우)		18 %	61명
	5.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과 리더십		33 %	113명

20 문 제	박정윤 교수는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의 교재를 집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Excel
답 변	1 : 성경증권, 2 : 원 제목처럼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가 좋습니다., 3 : 성경과 증권투자, 4 : 성경적관점에서본 증권투자, 5 :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6 : 증권투자의 신선한 혁명, 7 : 성경으로 배우는 증권투자, 8 : 성경으로 내다본 증권투자, 9 : 증권과 성경, 10 : 그대로가 괜찮은거 같습니다, 11 : 성경적인 증권투자란 무엇인가?, 12 : 행복한 증권투자, 13 : 증권투자 성	